

문화

■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를 보고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이탈리아의 학자 바노초 비링구초(Vannoccio Biringuccio)는 '신호탄에 관하여'(De la pirotechnia: 1540년)라는 책을 통해 "모든 금속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유리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건축, 미술 등 모든 예술 장르가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유리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고백이다.

유리는 인간이 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예술이다. 세상의 모든 빛을 담아내는 유리는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 중심에는 베니스 무라노섬이 있다.

이탈리아 유리의 화려한 빛이 광주를 물들고 있다.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오는 8월 22일까지·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전은 유리공예의 본고장 무라

노섬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관람객을 위해 지난 2008년 '루벤스 명화'전 등 수많은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에는 7만여명의 관람객이 다

“세계 최고 환상의 유리공예 ... 보기만 해도 시원”

너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할 수 없는 명작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관람객이 “왜 다른 볼록버스터 전시를 기획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역민들은 예술에 목말라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을 기획하게 된 것은 지역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작품



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훌륭한 예술적 소재다.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나타난 아르누보(Art Nouveau)는 유리 예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남시파의 거장 에밀 갈레와 돌 령제, 미국의 티파니 등은 중

이처럼 유리 예술과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수도도 표방하는 광주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광주에는 유리 공방이 단 한 곳도 없고, 유리 작가도 전혀 없다. 꼭 유리 공방이 있어야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유리 예술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광주의 현실은 부끄럽기만하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유리 공예가 광주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매일 전시장에는 지역 작가들과 공예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던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에 많은 영감을 얻어가고 있다.

또 지역 미술대학의 대학생, 일선 초·중·고교생들은 카메라와 노트를



지난 20일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8월 22일까지)이 열리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탈리아의 국보급 유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장을 찾고 있다. 비로소 광주에서 유리 공예의 미래가 움트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도 볼 수 없었던 대형 유리 작품에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는 관람객

의 탄성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광주에 유리 공방과 작가가 전혀 없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유리 예술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토대는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역민에게는 수준 높은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여름'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기원을 본다.

“문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시아공연예술위 등 문화단체 군부대·장애인 시설 찾아 공연

'문화, 함께 나누면 더욱 커집니다.'

지역문화단체들이 군부대, 장애인 시설 등을 찾은 다양한 문화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31사단 군 장병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갖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육군 향토사단 503여단 소속 장병 50여명과 '다함께 소리 맞춰'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이번 교육은 호흡법, 발성법 등을 제대로 익혀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모두 30회 진행되며 빛고을예술공동체 지휘자인 김사도씨와 중창팀 등 8명이 강사로 나서고 있다.

12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발

표회도 열 계획이다.

전통문화연구회 열수는 '두드려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를 주제로 전국 9곳의 농협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중이다.

서양 드림을 이용해 직접 제작한 악기로 만든 작품 '질주'와 남성적인 힘찬 북의 울림소리를 강조한 '타고'를 비롯해 '장고 바이러스', '쿵쿵타', 나도 예술가 등이 선보인다.

송정농협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농협, 경기 안성보개농협, 강원 평창농협 등 전국을 아우르며 구례 섬진하트홀, 영광 농협, 광주하남농협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광주연시안오델클럽은 '사랑 나눔 음악회-신나는 요를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은 엔시안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31사단과 함께 문화나눔프로그램 '다함께 소리 맞춰'를 진행한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제공

오델클럽은 전북 푸른학교를 시작으로 광주 귀일 정신요양원, 해남 해민 병원 등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오는 10일에는 대구 더불어 복지재단과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대를 펼친다.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알프촌, 카우벨, 오르젤리, 우드수프 등 다양한 기악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등 오델송을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 영재들의 무대 '금호영재콘서트'

15일부터 금호아트홀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금호영재콘서트는 음악 영재들이 꿈꾸는 무대 중 하나지만 지역 출신 연주자들에게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 4월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음악 영재 발굴을 위해 유·스퀘어문화문화관 금호아트홀과 함께 진행한 지역 청소년 대상 오디션은 그래서 더욱 의미있는 행보였다.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에서 우수한 연주자 19명이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데뷔 무대를 갖는다.

15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첫 무대에는 올해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피아노의 김동민(전주에고2년), 금상 수상 경력이 있는 양찬영군과 김승희(여수여도초 5년)양이 무대에 올라 멘델스존의 '영적변주곡', 하이든의 '소나타 46번 마장조', 슈만의 '아베그 변주곡',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등을 들려준다.



김승희 김동민 양찬영

이어 20일에는 강지원(비올라), 이아미(첼로)양이, 22일과 29일에는 각각 변예은(플루트), 전용창(피아노)군이 무대에 오르며 내년 2월 17일까지 모두 19명이 숨은 재능을 선보인다.

그외 참가자는 피아노의 김기화·윤정미·신한나·최현호·김진환, 바이올린의 박소리·김산지·조수영·이가현, 플루트의 장민영·정세운 등이다.

한편 제2회 오디션은 오는 2011년 4월로 예정돼 있으며 성악 부문이 추가될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그라미 안에서 시간을 줍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전시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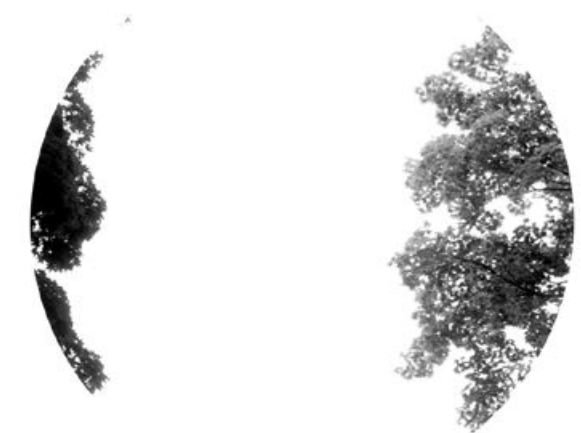
11일까지 이도경·박혜정·정다경씨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11일까지 홍보관 전시작품전 '동그라미 안에서 시간을 줍다'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2월에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 전시작품공모전'에서 선정된 5개 작품전 중 네 번째다.

이번 전시작품전에서 이도경·박혜정·정다경 세 명의 작가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을 조망해 그들만의 '동그라미' 속에 형상화한 자기 발랄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바쁜 일상 속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에서 순간이 가진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다경 작 'no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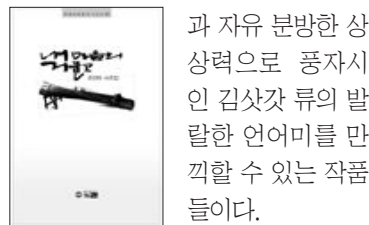
'작가와 대화' 시간은 10일 오후 2시에 있다. 문의 062-236-048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원로 시조시인 조연탁씨

'내 마음의 거문고' 출간

시와 시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 시인 조연탁(77)씨가 시조집 '내 마음의 거문고'(한림 펴냄)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에는 '푸념인가', '뉘뜨린가', '미더운 겨레', '우리 경전을 깨닫고' 등 200여 수의 단시조를 수록했다. 시인의 너그럽고 호탕한 성품답게 사물을 꿰뚫어보는 탁 트인 시 구절



과 자유 분방한 상상력으로 풍자시인 김삿갓의 발랄한 언어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조 시인은 '한백문학'과 '문학춘추'로 등단했으며, 한국민간협회 보성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전남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래로 위은 역사의 큰별'과 '홀로 부르는 노래' 등을 펴냈다. 현재 입석문화회장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

문광부, 참가단체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이달 중순부터 2010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 중·고교(교사) 및 청소년 단체(운영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단체) 차원에서 여는 시낭송 축제와 학급별 시낭송 수업, 소규모

시낭송행사다.

참가 신청을 접수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가 대상이 확정하게 되며 채택된 참가 단체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자체적으로 시낭송 축제를 열면 된다.

축제와 행사는 최대 80만원까지, 시낭송 수업은 최대 40만원까지 행사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11일까지 축제 홈페이지(nangsong.munjang.or.kr)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70-8633-905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holic, MEGABOX, and CINUS theaters, listing various movies and showtimes.